

두려우면서, 매력적이면서, 야만스러운 중국: 중국 내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 한국기업인의 중국인식

장세길*

1. 문제제기

역사적으로 구성된 타국에 대한 이미지와 시각,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데올로기, 미디어가 조정하는 타국에 대한 공적담론 등은 정책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채수홍 2008: 182). 여론이 정책결정에 주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정책결정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책이 특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구속하기 때문이다(로이드 1994: 169-182). 예를 들어, 한일(韓日)간 외교행보에 상대국가에 대한 집단감정(collective emotion)이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양국의 역사교과서 분쟁만 보더라도 자명하다(Soh 2003: 145-147). 갈수록 한중(韓中)관계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실감하는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의 중국인식(perception)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¹⁾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강사

1) 한국인의 중국인식을 주로 다루는 분야는 역사학이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안보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청일전쟁 이전의 한국(조선)인은 자발적인 추종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천하라는 큰 틀 속에서 중국(청)을 중심적 대상으로 이해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서구열강에 무기력하게 패하는 중국을 보면서 한국인의 중국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일본을 통해 ‘근대’를 추진하기 시작한 한국인이 보기에 중국은 근대화에 실패한 나라, 문화 개혁의 낙오자로 비쳐졌다는 것이다(예, 김한규 1999; 이옥연 2006; 최승현 2006, 2010; 박승준 2010). 게다가 한국으로 이주한 화교들이 한국 상인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고(박정현 2010: 8-10), 중국인의 만주한인에 대한 폭력사태(완바오산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중국인 배척운동이 거세졌고(민두기 1999: 150-151) 그러면서 한국인에게 중국(인)은 부정과 경멸의 대상으로 인식되어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한국인의 중국인식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은 한중수교 이후다. 이 시기의 변화된 중국상(像)을 다루는 연구들은 대체로 두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한국으로 몰려든 중국인이주노동자, 혹은 중국여행 등을 통한 일상적인 중국경험이 대폭 증가하면서 열등, 야만, 더러움으로 이미지화되는 한국인의 중국멸시관이 더욱 강화됐다는 입장이다(예, 강진아 2006; 유장근 2006). 둘째,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국인의 중국인식이 100여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크게 뒤바뀌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진아(2006: 317)는 양국의 국가경쟁력 및 국제정치에서의 위상이 벌어질수록 한국인의 중국인식은 우월감에서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옥연(2006: 256)은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에 재앙이 될 것

적, 사회문화적 측면의 한중관계가 중요해지면서 다양한 분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고, 관련 주제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위협론에 대한 한국적 시각(예, 서진영 2002, 2006; 한석희 2003; 금희연 2004; 전성홍 2005; 지만수 2006; 서진영·강수정 2008),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전망과 발전방안(예, 김광익·전영평 2004; 최승현 2008), 반중감정의 형성과정과 영향(예, 지병근 2008; 홍면기 2008), 우호적 한중관계 형성방안(예, 이종민 2006; 임춘성 2009), 한국인의 중국인식과 일상에서의 영향(예, 황동연 1999; 장세길 2010) 등이 있다.

이라는 황화론(黃禍論)적 공포”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혼돈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정치학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국위협론 연구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예, 서진영 2002, 2006; 한석희 2003; 금희연 2004; 전성홍 2005). 한국인이 갈수록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중국인식을 ‘멸시/공포’, ‘중국위협/중국기회’, ‘우월/열등’처럼 다분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인의 중국인식이 논의되기 시작한 뒤로²⁾ 이러한 두 가지 중국인식이 한국인의 실천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두 가지 개념으로 한국인의 중국인식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국에서도 중국위협론을 비롯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국인의 중국인식도 ‘멸시에서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마치 한국인의 중국인식이 ‘전통적 중국관 ▶ 중국멸시관 ▶ 중국위협론’이라는 식으로 순차적이면서 단선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가인식은 새로운 이미지의 출현에 의해 이전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역사적 관계에서 형성돼왔던 이미지 위에 새로운 것이 겹쳐지는 속성을 갖는다. 즉, 특정 국가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적 조류에 의해서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면서 증첩되며, 이렇게 증첩된 인식 중에서 인식주체가 처한 상황논리(context)와 대상 국가의 행적(performance)에 따라 하나의 내용이 불거지거나, 혹은 여러 내용이 동시에 발현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한국인의 중국인식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2) 한국(조선)인의 중국인식에 대한 자료는 청일전쟁 이후에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박정현 2010: 8).

고 하더라도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에는 양국의 오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관계에서 형성된 다양한 인식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논문은 중국 내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 한국기업인³⁾의 사례에 주목한다. 인식주체가 처한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국가인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실증적 경험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2006년을 기점으로 중국경제의 패러다임이 ‘양에서 질로’ 바뀌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재중 한국기업인⁴⁾ 사례야말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인식의 변화양태를 비롯해, 인식주체가 처한 상황과 대상국가의 행적에 따라 국가인식이 중첩되어 발현되는 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 한국기업인이 중국으로 진출하고, 현지에 적응하며, 위기에 대처하는 가운데 드러내는 중국에 대한 시각들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기업인의 중국인식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지조사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중국 칭다오(靑島)의 ‘D금속’(1990년 진출), ‘BR공예품’(2000년 진출), ‘H의류’(1997년 진출), ‘N장신구’(2000년 진출)에서 진행했으며, 추가조사는 2009년 8월 말부터 9월초까지 2주에 걸쳐 이뤄졌다. 조사는 재중 한인과 한국인유학생까지 포괄적으로 이뤄졌지만, 이 연구에서는 현지조사 대상기업 관계를 비롯해 재중 한국기업인의 사례만을 인용했다.

3) 한국기업인은 중국에 건너간 한국인사장, 한국인관리자(총경리), 한국인직원(부장, 대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4) 중국정부는 ‘제11차 5개년 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規劃)(2006-2010)’을 기점으로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고, 산업고도화 전략을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 한국기업은 다양한 지원혜택에서 배제되기 시작했고, 유연한 정책집행의 도움도 받지 못함으로써 세계시장이 요구하는 생산단가와 생산속도를 따라가지가 갈수록 힘들어졌다. 또한, 노동집약적 한국기업은 ‘석양기업’으로 불리면서 사회문화적으로 배제되거나 중국사회에 동화될 것을 강요받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장원·이창휘·김성훈·윤문희(2008), 장세길(2010)의 연구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2. 두려워지고 있는 중국

세계 각국이 중국의 부상을 ‘위협론’으로 이야기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한석희 2003; 서진영·강수정 2008 참조). 첫째, 중국의 경제 대국화이다. 지금과 같이 중국이 계속 성장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제1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서방 경제전문가들의 예측이 중국위협론을 촉발시켰다. 둘째,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비롯한 정치적 측면이다. 탈냉전시대에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자이자 도전세력으로 인식되면서 중국의 경제발전과 군비 증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셋째, 중화민족주의이다. 중국은 국력이 신장되는 만큼 강대국으로서 권익을 추구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서 현재의 타협적이고 안정 지향적인 자세를 견지하기보다는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중 한국기업인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중국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위기의식이 증가했다. 동아시아국가들의 공업화 과정을 설명하는 ‘안행형(雁行形, flying geese) 모델’에 따르면, 높은 단계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은 한 단계 낮은 국가로 이전해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낮은 단계의 국가는 높은 단계에서 이전해온 기업들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장 높은 단계인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산업화를 먼저 이뤘고, 뒤이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거쳐 중국으로 산업화가 진행됐다는 것이 안행형 발전모델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분석처럼, 한국기업인은 산업화가 높은 단계의 국가에서 진출한 기업인으로서 한 단계 낮은 중국에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둬도 동시에 기술우위에 따른 지위상승을 경험했다.

그런데 2006년을 기점으로 중국경제가 ‘양에서 질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노동집약적 한국기업은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이했다. 칭다오시정부는 산업고도화 전략에 따라 노동집약적 해외기업을 통제했고, 각종 혜택을 줄여나갔다. 정책적 배제로 인한 생산속도 하락, 기업환경 악화에 따른 생산가격 상승으로 한국기업은 국제생산망의 중간공급자로서 경쟁력을 잃어갔다. 또한, 한국기업인들은 경쟁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던 중국기업이 어느 순간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한 것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재중 한국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2008년 1월)한 결과를 보면, ‘몇 년 후면 중국기업과 기술경쟁력이 대등해질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4.7%가 3~4년 이내에 비슷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1~2년이라고 답한 기업인도 35.7%에 달했다. 3.5%는 중국기업의 기술력이 이미 노동집약적 한국기업의 그것을 앞질렀다고 평가했다. ‘현재’는 노동집약적 한국기업의 기술력이 중국기업보다 앞서 있지만 조만간 따라잡힐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중국기업인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한국공장에서 해외무역업무를 맡아오다가 독립해 장신구업체를 창업한 중국인(조선족) 정사장은 “한국기업이 기술면에서 조금 앞선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인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중국기업의 경우 저가제품 전략을 추진하기 때문에 굳이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을 만들지 않을 뿐”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노동집약적 한국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점했던 위치를 중국기업들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반면 중국에서의 생산원가(인건비, 원부자재비, 기타비용 등)가 상승하고 세계경제가 불황에 허덕이면서 한국기업을 찾아오던 해외바이어들이 중국기업으로 발길을 돌리는 일들이 심심찮게 생겨나고 있었다.

중국기업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실제 공장 운영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은 한국기업인에게 심각한 위기감을 불러왔다. 한국기업인이 성공을 꿈꾸며 중국으로 진출하고, 중국에서 여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이 중국보다 산업화가 앞서 있다는 인식이 밑받침됐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중국경제가 급부상 하면서 조만간 한국기업의 기술적 우위가 무너질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 위기의식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 집합적 위협(collective threat)을 느끼는 것은 당연했다.

둘째, 한국기업인들은 한중 두 나라의 정치적 불균형에서 오는 폭력적인 일들을 자주 경험함으로써 공장운영과 일상생활에서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 예를 들어, ‘H의류’가 중국에 진출한 지 5년이 지나면서 공장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무렵, 어이없게도 공장지붕이 폭설로 주저앉아 버린 일이 있었다. 지붕이 무너졌다는 것보다 더 황당한 것은 건물주인 촌장의 태도였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촌장은 사람을 동원해 공장 안에 있던 원단이며 기계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감시한 것도 모자라 이에 공장 문을 잠가버렸다. 그리고 고유림사장을 감금한 채 계약기간인 10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놔다. 이런 상황에서 고사장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라고는 한국총영사관(칭다오) 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다. “물건은 포기하고 담을 뛰어넘어 도망 나오라”였다. 총영사관에서 사람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았다. 그냥 ‘잘’ 도망 나오라는 말 뿐이었다. 고사장은 “이 일이 있는 후 한국정부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게 됐다”며,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들을 연구자에게 전해줬다.

아는 한국인 사장 한 명이 왔어요. 요즘 힘드니까 아는 한국회사랑 합치기로 했나 봐요. 집주인하고 이야기가 되고, 한국공장하고 합치기로 했으니까 애

들(노동자) 다 데려가고 집기도 가져가고, 이사 가는 거죠. 집주인도 동의해서 돈도 다 건넸데요. 그런데 막상 이사를 가려고 하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이 힘이 좀 덜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공간 등을 부르는 못하고 애들을 쫓아가고 “그리로 이사 가면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파업을 한 거죠. 납기는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집주인이 “애들 달래고 무마시켜 줄 테니까 돈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줬대요. 하지만, 일이 해결이 안 되고 탄소리를 하면서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더 갖고 와라 하면서 감금을 시키고, 아예 내보내질 않고, 이렇게 애들(중국인)은 [한국인일] 가두는 것을 잘해요. 하룻밤 갇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가둬놓으면 여기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가야 돈을 구해올 것 아니냐?”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 공장으로 돈 빌리러 왔어요. (고유림사장)

이반도주하는 기업을 중국정부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때도 한국정부는 법을 지키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한국기업인의 하소연에서도 묻어나듯이, 한국기업인들은 “한국정부가 정치대국인 중국눈치를 보느라 우리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한다”고 생각했다.⁵⁾ 고유림사장은 “유럽 사람도 중국을 두려워해요. 법도 상식도 없고.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은 그런 두려움을 아니까 국가가 대응해요. 국민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뺏기고 뜯기고 도망가는 거”라며 한국정부를 성토했다. 자리에 함께 있던 한국기업인도 “[한국인]사장이 이반도주하는 바람에 칭다오교도소에 재판도 못 받고 수감된 한국직원들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한국]정부한테 보호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렸다”고 말했다. 자신의 뒤를 봐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없는 ‘어둠의 자식’으로서 스스로를 규정했으니 두려움이 커지는 것은 당연했다.

중국 정부기관의 공권력 역시 중국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든

5) 한국총영사관에 문의한 결과 한국기업인의 감금, 폭행피해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한국기업인의 설명과 달리 총영사관은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다만, 총영사관의 조치가 어려움에 처한 한국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한국기업인들은 총영사관에서 기껏해야 공안국에 협조요청을 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털어냈다.

중요한 이유였다. 한국기업(인)의 사회적 가치가 높을 때는 정부기관에서 “뺏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나마 괜찮았다. 예를 들어, ‘BR공예품’은 진출초기만 해도 한국인직원의 중국인직원에 대한 폭력사건이 빈번했다. 그럴 때마다 중국인직원들은 촌정부나 관련기관에 항의했지만, 당시의 정부기관들은 회사를 찾아와 폭력적인 언행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할 뿐, 오히려 폭행사건을 무마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중국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위상이 추락한 노동집약적 한국기업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대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외국인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기업인들은 미운털이 박히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했다. 여기에 한국인에게 잠재돼 있던 집단기억, 즉 한반도를 지배했던 대국 및 사회주의 체제로서 ‘레드콤플렉스’라는 이미지가 되살아남으로써 일상에서 경험하는 중국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⁶⁾

셋째, 중국민족주의 역시 한국기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재중한인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해서 불거진 혐한감정의 심각성을 밝힌 적이 있었다. “2008년 5월 25일 장쑤성 쑤저우(蘇州)에서 성화 봉송주자로 땀 때였다. 행사주최 측이 시민에게 올림픽 깃발과 삼성 깃발을 나눠줬는데 일부 시민이 삼성 깃발을 땅에 던지고 짓밟는 광경을 목격했다. 쑤저우는 삼성이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시인데 시민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크게

6) 하나의 사례로, ‘N장신구’는 2008년에 수천만 원어치의 수출물량을 도둑맞은 적이 있었다. 관사가 있는 공안이 없는 탓에 사건은 호지부지됐다. 그런데 2009년 여름, 도난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경비가 순찰을 돌던 새벽 1시 경에 창문 쇠창살을 끊고 진입하던 도둑을 발견했고, 도둑은 놀라 도망간 뒤였다. 연구자와 현장에 있었던 남현곤 이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담당경찰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가겠다,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라”는 말뿐이었다. 남 이사는 황당해하면서 “교통사고에도 달려오는 놈들이 회사가 도둑맞았다고 하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웃긴 놈들이다”고 분노했다. 그렇다고 혼잣말로 욕하는 것 말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괜히 불평이라도 늘어났다가 도둑을 잡는 것은 고사하고 앞으로 귀찮아질 일만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놀랐다. 중국에서 큰 공헌을 한 삼성이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한국기업이라는 이유로 중국인이 반감을 표시하는 것을 보고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어느 수준인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⁷⁾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마저 이런 대접을 받았으니 중소기업의 한국기업이 어떤 처지였을 까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았다.

연구자 역시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연구자와 함께 있던 한국기업인 채석우사장이 도로를 건너던 중 피자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채 사장은 도로에 나뒹굴었고, 어깨를 다쳤는지 손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채 사장은 알고 지내던 (공안부서와 관시가 좋은) 중국기업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중국인사장은 현장에 도착해 공안(경찰)에게 “이 사람은 한국에서 온 기업인이다. 칭다오에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니, 잘 부탁한다”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저 구경만 하던 중국인들이 한 소리씩 하기 시작했다. “한국기업인데 왜 봐 주냐?”, “외국인이 중국에서 와서 조심해야지. 무슨 소리냐?”, “왜 한국기업인 편을 드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 중국인사장과 심한 말싸움으로 번졌다. 공안마저 제지할 마음이 없어 보였고, 연구자와 채 사장은 이 과정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을 수밖에 없었다. 채 사장은 연구자에게 “피해자는 난데 갑자기 가해자가 된 기분이다”며 한숨을 쉬었다. 결국 중국인들은 한국기업인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니라 혐한감정의 대상인 ‘한국인’으로서 바라보고 민족감정을 표출한 것이다.

금희연(2004: 106)은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힘과 능력, 의도를 분석해볼 때 한국인에게 중국에 대한 위협이 현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훗날의, 그리고 가상적인(remote and imagined)”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위협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한중관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재중 한국기업인

7) 중앙일보(2008. 09. 08), “중국 주류층까진 반한감정 안 번져 … ‘겸따마다’로 빨리 풀어야” 참조

이 공장운영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중국의 집단적 위협은 결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이 아니었다.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만큼 한국기업인은 위기인식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상응해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다.

두려움이 커지는 만큼 중국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졌다. 예를 들어, “한국에 가면 중국을 참 무시하는데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우리”라고 말하거나(고유림 사장),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려서 중국을 우습게보지 말고 서로 경제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박도민 사장)고 강조했다. 또는 “우리(한국인)가 위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동반자 관계로 살아야 한다”(최상천 사장)거나, “호랑이”가 된 중국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김종수 사장)면서 중국과 공존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함을 누차 강조했다. 이상신(2009: 98)은 “한국인이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지극히 현실주의적이면서 필요에 따라 국익을 위해 주변국과 협조하는 것에 개방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태도를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고유림·박도민·최상천·김종수 사장 등을 유연한 현실주의자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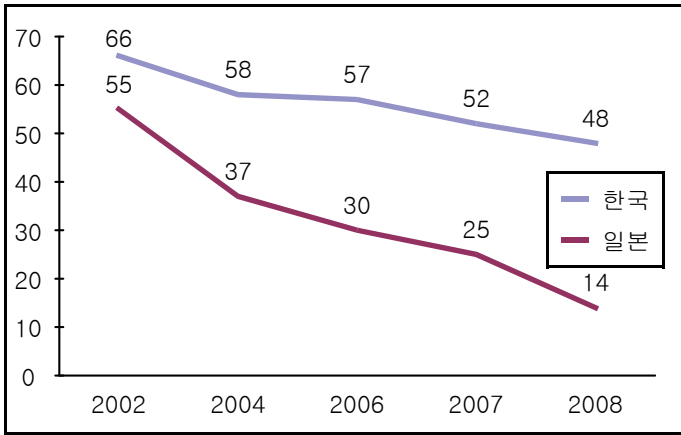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연구자는 청나라를 경외하는 태도를 보였던 구한말 온건파의 사대주의적 시각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급진파와 달리 온건파는 외세의 후원을 위해 대국으로서 중국의 군사적, 문화적 위상을 인정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전통적 사대외교를 대외관계의 안전판으로 여겼다(총성의 2000: 176-179). 이러한 온건파의 중국인식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한국기업인 역시 사대주의를 떠올릴 법한 내

8) 한반도 왕조들이 중국과 “조공(朝貢)을 통한 사대자소(事大字小)의 교린지례(交隣之禮)”(이춘식 1997: 335-336)를 형성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한중 간 현실적인 힘의 구조를 인정한 것이다. 둘째,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인정하고 중국 우위의 계서구조를 받아들인 것이다. 셋째, 외적의 침이 있을 경우 중국의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다(박승준 2010: 27).

용의 새로운 한중관계를 강조했다. 김종수사장은 “[중국은] 끝도 없이 큰 나라야. 땅만 크나. 중국하면 다양성이잖아. 민족도 다양하고 역사도 깊고. 원래 세계중심이잖아”라면서, “미국을 옆어먹고 있는 … 중국에 붙어야한다”고 말했다. 무역업을 병행하는 중국대학의 한국인 이모 교수는 “사람들이 저지분해서 그렇지 중국문화가 세계 최고 아니냐?”면서, “중국민족성이 한국인보다 우월한 경우가 많다”는 말을 반복했다. 최상천사장은 한발 더 나아가 “우리(한국인)는 시덥으로 시집은 며느리”라면서, “중국이라는 시덥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예뻐를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한국기업인의 시각에서 “대국에 대한 한국인의 소국의식”(기무라 2000)에서 비롯된 두려움뿐 아니라 중국전통에 대한 관습적 존중, 종번관계(宗蕃關係)를 기반으로 하는 사대주의적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국기업인 모두가 중국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합리적 대응으로서 사대주의적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위협론이 불거지면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급격히 많아진 일본인 사례처럼(이기완 2010: 213), 위기의식을 느낀 한국기업인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단정 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한국기업인의 인식 및 대응양태는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는 ‘중국위협론’만이 아니라, 중국을 매력적인 나라로 이해하는 ‘중국기회론’,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는 ‘중국기우론’ 등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⁹⁾

9) 중국기회론이란 1999년 중국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뉴욕연설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던 주장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세계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 다(한석희 2003: 290). 중국위협론처럼 중국의 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현실주의(realism)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기회론은 대체로 자유주의(liberalism) 시각을 대변한다(이래영·정한울 2007: 20). 중국기우(또는 무용)론(예, Segal 1999; Elang 2003)은 중국의 패권추구 능력에 대한 검증을 통해 중국이 정치



동아시아연구원 국제여론조사(2004, 2006), <http://www8.cao.go.jp/survey/index.html>(일본), Pew Research Center(미국) 조사(2002, 2007, 2008), 참조

〈그림 1〉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對)중국 호감도 추이

3. 여전히 매력적인 중국

2004년 한국인의 대외 호감도 조사(동아시아연구원 2004) 결과를 보면 중국(58%)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국가로서 영국(61%)에 이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2006년 조사(동아시아연구원 2006)에서는 호주(65%), 영국(63%), 독일(61%), 프랑스(60%), 미국(58%)에 이어 여섯 번째 자리(57%)를 차지했다. 2004년 이후에 중국이 동북공정(東北工程)을 본격화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결코 낮지 않은 호감도였다. 특히 2008년 조사(Pew Research Center 2008)에서 알 수 있듯이 베이징을 립픽 성화 봉송행사에서 발생한 중국인유학생의 폭력사태로 반중감정이 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은 일본에 비해 긍정적이었다(〈그림 1〉 참조).

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아직까지 2류 중진국에 머무르고 있으며, 패권을 추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결론짓는다.

조셉 나이(Joseph Nye)는 문화, 가치체계, 외교정책, 시장 등 다양한 연성권력(soft power)자원이 국가에 대한 매력(attraction)을 느끼게 함으로써 타국의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Nye 1990: 153).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국의 매력은 다양할 것이다. 거대한 영토를 가진 대국(大國), “한국문화의 원류인 찬란한 ‘오천년’의 중국역사”(황동연 1999: 85), 동양/서양 구분에 따른 한집안(一家)으로서의 문화적 동질성(최승현 2006: 425), 세계최대의 시장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연구자는 한국인, 특히 한국기업인이 느끼는 중국에 대한 가장 큰 매력은 경제적으로 기회가 많은 땅이라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한중경제관계만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92년 한중수교 이전까지 한국의 중국투자자는 101건에 6,500만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94년 841건에 6억 3,300만 달러, 1996년 734건에 8억 8,800만 달러로 비약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중국이 WTO에 가입한 해인 2001년 이후에는 중국진출이 러시를 이뤘다.¹⁰⁾ 또한, 한국경제가 IMF 체제를 맞으면서 곤두박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중국수출에 힘입어 2003년부터 연속해서 두 자리(2003년 19.3%, 2004년 31.0%, 2005년 12.1%)를 기록했다.¹¹⁾ 이렇듯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한국이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인 사이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됐다(Chung 2001: 781). 중국은 단순한 투자대상국이 아니라 “중국만이 살길이다”는 수사(rhetoric)에서 알 수 있듯이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된 것이다.

중국으로 진출하던 한국기업인 역시 비슷한 생각을 공유했다. 이들은 중국으로 건너가지만 하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태도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10)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http://www.koreaexim.go.kr>) 참조.

11)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 참조.

소개한 한국 언론의 역할이 컸다. 대표적인 사례로, ‘초코파이의 성공신화’는 웬만한 한국인이자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으며, 실제로 “중국에서 물건을 하나씩만 팔아도 15억 개를 팔 수 있다”는 단순공식을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노동 집약적 한국기업이 서해를 건너가 성공한 이야기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됐다. 이런 이야기들은 해외투자를 고려하던 한국기업인으로 하여금 중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게 뭐냐면 언론에서 나오는 정보(중국만이 살길이라는 보도 등)가 기업들이 더 나가게 되는데 거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가게 됐기 때문에 서로 이놈이 이놈한테 영향을 주고 그래서 계속 정보력이 더 커지지 않았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필리핀보다는 중국 쪽이 더 [각광받게 된 이유 중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고려가 된 건 중국자체 내수시장을 하나를 더 보게 된 거죠. 인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초코파이를 한 개씩만 팔아도 15억 개를 팔 수 있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솔직히 여기 있는 한국기업인 중에서 중국에 오면서 대박을 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양수만 사장)

경제적 합리성을 놓고 보더라도, 중국은 세계에서 잠재력이 가장 큰 시장일 뿐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얼마든지 보충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resource), 시장(market), 효율성(efficiency)을 좇는 해외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이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는 경험담과 한국의 공적기관에서 쏟아내는 다양한 수사들은 한국기업인에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 경제적 기회가 많은 매력적인 나라로서 중국을 상상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중국이 세계최대의 인구와 시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로 진출하는 기업인과 달리 중국진출 기업인에게 대박을 꿈꾸게 만들었다. 연구자가 만난 많은 한국기업인 역시 ‘중국진출 = 재기/대박’이라는 차이나드림(China dream)을 꿈꾸며 중국으로 진출했다.

‘D금속’ 총경리를 지낸 최상천 사장은 한국의 ‘S식품’ 영업과장을 지내던 중에 명퇴를 신청했다. 말이 좋아 명퇴지 회사에서 해고된 것과 다를 게 없었다. 40대 중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막막했다. 그러는 와중에 ‘D금속’의 중국법인 책임자를 제안 받았고, 최사장은 망설임도 없이 중국행을 결정했다. 최 사장은 “당시는 [한중]수교 이전이다. 중국에 한 번 가려면 통일부¹²⁾에 가서 안보교육을 받아야 했다. 명칭도 중국이라고 안하고 중공(중국공산당의 줄임말)이라고 불렀지. 사회주의 국가잖아?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지. 그런데 [‘D금속’ 회장이] 중국에 가보지 않겠냐고 나한테 물어봤을 때 중국에 대한 두려움보다 중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기술자로 20대를 보낸 강기범총경리(N장신구)는 한국에서 ‘A귀금속’을 꾸렸지만 IMF 시기에 “쫓딱 망하고 말았다.” 40대를 넘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장신구 제작이 전부였다. 기술이야 누구든 인정했지만 한국에서 그를 필요로 하는 업체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경력 탓에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 그를 채용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으로 시선을 돌렸다. 칭다오(靑島)는 세계 장신구산업의 신흥 메카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이곳에서 성공한 동료들의 경험담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에서 인정받은 기술이라면 중국에서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최상천 사장, 강기범총경리와 같은 한국인들, 이를테면 한국의 몰락한 중산층은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중국을 이해한 것이다.

한국기업인이 중국을 매력적인 나라로 생각하는 이유에는 단순히 부(富), 곧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만은 아니었다. 자신이 한국이라는 부자나라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

12) 연구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 적성 국가를 출입하는 이들에 대한 안보교육을 어느 부처에서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최상천사장이 기억하는 대로 통일부로 기술했다.

면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실제로 칭다오로 건너간 뒤에 한국기업인들은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윤택한 삶을 경험했다.¹³⁾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국기업인들은 ‘실패한 기업인’ 혹은 ‘몰락한 중산층’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신분이 순식간에 뒤바뀌는 일이 허다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시다(미싱보조)생활부터 미싱사로 일을 그만 둘 때까지 꼬박 25년 동안 옷 만드는 일에만 매달렸던 고유림 사장은 중국으로 진출(1997년)하면서 ‘H의류’와 ‘Z의류’(임대)를 거느린 사장이 됐다. 한중수교가 이뤄지기 전인 1988년부터 1년에 3~4차례 씩 홍콩을 거쳐 칭다오를 드나들던 개인외파상 양수만 사장은 1992년에 아예 칭다오에 공장을 차렸고, 사업이 잘 돼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으며, 제3대 한인상공회장까지 역임했다. 악세사리 기술자로 20여 년 동안 근무한 안명환총경리는 IMF 시기에 장신구업체들이 속절없이 쓰러져갈 때 직장을 잃고 말았다. 다행히 평소에 알고 지내던 ‘B산업’ 대표가 중국의 ‘BR공예품’을 맡아달라고 제안하면서 2000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총경리가 됐다. 이 회사의 최유석 부장은 한국에서 회계업무를 맡아보다가 중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직원이 700명에 달하는 기업의 ‘서열 2인자’가 됐다.

이와 같이 한국기업인은 공장 인팍에서 우월적 위치를 점하며 한국에서 누리지 못했던 삶을 경험했고, 그럼으로써 중국을 돈도 벌고 지위도 높아지는 매력적인 나라로서 바라봤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은 중국에서 매력을 느꼈던 많은 요인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 예를 들어, 한국인을 대상으로 지은 호화아파트에 살면서 가정부를 2명씩(1명은 한족으로 청소담당, 1명은 조선족으로 음식담당) 두는 한국인이 부지기수였다. “한국여자가 중국에 와서 세 가지를 못하면 바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는 ‘골프 배우기’, ‘가정부 두기’, ‘애인 만들기’였다. 한국기업인도 접대부 아가씨가 한꺼번에 수십 명이 풀려나올 정도로 초호화급인 KTV(유홍주점)를 자주 드나들었고, 공장 혹은 술집에서 예쁜 아가씨를 ‘현지처’로 두기도 했다. ‘구별짓기’라도 하듯 일반 중국인은 쉽게 다니지 못하는 대형쇼핑센터, 백화점, 음식점, 헬스클럽, 호텔 등을 주로 이용했다.

한국기업인은 여전히 중국을 매력적인 나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11·5 규획(規劃)을 기점으로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중국에서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배제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학계에서도 저임금만을 노린 노동집약적 기업은 앞으로 중국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언론은 ‘무너진’, 또는 ‘일그러진’ 차이나드림이라고 표현하면서 중국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들의 지적처럼 노동집약적 한국기업은 경영 위기를 맞이했고, 중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거나 한국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졌다. 하지만, 많은 한국기업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칭다오에서 누렸던 “씩 관찮은”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돈을 많이 벌었던 별지 못했던, 사장이던 직원이던 상관없이 한국에서 접했던 사회경제적 지위를 칭다오에서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중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판단했다. 그러다 보면 답은 간단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장이나 직원 모두에게 중국은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는 ‘멋진 신세계’였기 때문에 중국에 남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최상천 사장은 120평에 달하는 최고급 아파트에 살았다. 멋진 해안가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철저한 보안, 칭다오 고위관료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한마디로 “요새화된 엔클레이브(fortified enclaves)”(Caldeira 1999: 83)였다. 최 사장은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을 은근히 자랑했다. 또한, 칭다오로 건너와서 한인상공회장을 지내면서 한국대통령을 자주 만나고, 칭다오시정부가 마련한 행사에 특별손님으로 초청 받고, 한인사회의 주요인사로서 각종 모임에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연구자에게 자주 들려줬다. 당연히 최 사장이라고 모든 일이 잘 풀린 것은 아니었다. 두 딸과 함께 시작한 공예품회사는 다른 한국기업 마냥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때론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대기업을 비롯해 대규모 서비스

업들이 칭다오로 밀려들면서 칭다오시정부나 한국정부에서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만 못해 가끔 비애감을 느낀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최 사장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중국의] 아파트가 300만 위안 정도로 칭다오에서는 비싼 아파트에 속해. 이걸 팔아서 한국 가봤자 아무 것도 아냐.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도 못 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내가 한국에 돌아가고 싶겠어?”라고 반문했다. “칭다오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채수홍(2009: 15)은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이주 이후 생활이 불안정할수록 이주노동자들은 현지에 남아야 하는 이유가 더 절실하며 현지화를 더 적극적으로 실천한다고 설명한다. 칭다오의 한국기업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기업인은 대개 몰락한 기업인 출신이거나 혹은 한국으로 돌아가 본들 대접받기 힘든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 생산기술자에 불과했다. 그러다보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힘들어도 중국에 남아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었다. 게다가 한국에서 이만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앞에 한국기업인은 가능한 중국에 오래 머물러했다. 예를 들어, 한유석 부장(BR공예품)은 중국에서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 연봉이 5,000만 원에 달했다. “많은 편이지. 한국 가면? 솔직히 받기 힘들지. 게다가 나를 채용할 회사가 얼마나 있겠어요?”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처럼 월급만이 아니라 직원 700명을 거느린 서열 2인자라는 자리는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매력이었다.

부와 명예의 차이나드림을 꿈꾸며 건너온 중국은 이들에게 마지막 승부처였다. 집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고, 가족 퇴직금까지 몰아넣었다.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모아 공장을 차렸고, 중국에서 벌은 돈은 재투자하는 비용(‘N장신구’는 자회사인 ‘S주얼리’ 인수, ‘BR공예품’은 신규공장 건립, ‘H의류’는 확장 이전)으로 사용한 터라 한국에 남은 것이 많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고유림 사장은 돈을 벌긴 했지만, 공장규모를 키우고 딸 시집보내면서 모두 써버렸다. 남은 재산이라고는 1주일에 한 번씩

고질적인 허리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갈 때 하루정도 머무는 아파트가 전부였다. 중국에 진출한 지도 벌써 수년째 접어들면서 한국의 인맥마저 사라진지 오래였다. 그들의 하소연처럼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한국에서 칭다오로 건너올 때보다 훨씬 멀고 험난해 보였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남으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적자에서 헤어날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로 내몰린 한국기업인들도 칭다오에서 누렸던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을 떠올리며 중국에 남아 있으려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금 20억 원을 날린 뒤 몇몇 한국기업인의 도움으로 근근이 살고 있는 이현정 사장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중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동네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살고 있는 이사장은 ‘정말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녔고, 주머니에는 달랑 20위안(약 3,6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다녔다. 그가 칭다오에서 안쓰러울 정도로 힘겹게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 몇몇 기업인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 돈까지 끌어들여 몽땅 날렸는데 무슨 염치로 돌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사장도 귀국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막노동뿐이라고 말했다.

이사장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경제적으로 분명했다. 하지만, 이사장의 생활만 놓고 보면 중국에 있는 것보다 가족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단적인 예로, 중국에서는 막노동조차 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 수 있는 조건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이사장은 중국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단순히 투자자였던 지인들을 볼 염치가 없다는 이유만은 아니었다. 이사장은 “익산에서 유명한 은세공 기술자가 중국에 왔어요 이 사람 기술이 장난이 아냐. 사람들이 몰리봐서 그렇지 깎아놓은 것(제품)을 보면 모두가 인정한다니까. 이 사람 제품을 지금 들고 다니

면서 중국 애들 가게에 세일즈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한번 좋다는 소문만 나면 그것으로 끝이야. 대박이야”라면서 중국에서 재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2년 만에 20억 원과 지금껏 쌓아왔던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부와 명예의 차이나드림을 여전히 믿고 있었다.

한국에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점했던 노동집약적 한국기업인의 계급적 특성은 현지생활이 불안정할수록 현지에 남아야 하는 이유가 더 절실한 초국가적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또한, ‘한국인’기업인이 경험한 경제적, 민족적 우월감과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차이나드림은 중국을 ‘멋진 신세계’로 상상하도록 만들어 대박과 지위상승의 꿈을 좇도록 유도했다. 결국 한국기업인의 ‘무너지지 않는’ 차이나드림을 비롯해, 한국기업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재중 한국기업인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도 벌고 지위도 상승하는 매력적인 나라로서 중국을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4. 두려울수록 야만스러운 중국

근대 이후 조선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개화파 지식인들 사이에서 조선의 근대화를 둘러싼 의견대립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종번관계를 망국의 원인으로 규정한 급진적 개화파들은 청이 예전부터 한국을 속국으로 삼아왔는데 이는 참을 수 없는 수치이며 국가발전의 장애물이라고 인식했다(총성의 2000: 176-179). 예를 들어, 개화파들은 “청이 지저분하고 허풍스럽고 눈앞의 이익만 좇는다고 비판했다. 이런 사람들의 속방이 되어 머리를 숙이는 조선인은 돼지꼬리만도 못하다고 보았다”(박정현 2010: 9). 일반대중의 생각도 유사했다. 청나라 상인이 조선으로

진출할 당시(19C 후반)만 해도 조선인은 대인(大人)으로 인식하며 긍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청나라상인의 횡포가 커지고 조선상권에 대한 독점이 심해지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 특히 청의 콜리(육체노동에 종사하는 하층의 중국인노동자)들이 대거 조선에 들어오면서 중국에 대한 인식은 더럽고 욕심 많은 이방인으로 바뀌었다(전우용 2003: 398).

청일전쟁을 전후로 중국 중심의 중화체제에서 벗어나 일본의 영향권으로 편입된 이후부터는 일본의 위치에서 중국을 바라보게 됐다. 일본인의 눈으로 본 중국은 근대화에 실패한 나라, 문명개화의 낙오자였다. 특히 일본에서 유입된 ‘문명-반문명(혹은 반야만)-야만’의 진화론적 문명관을 갖게 된 개화파는 중국이 근대화에 실패한 이유를 ‘야만스러운 민족성’에서 찾았다. 이러한 문명관에서 청나라는 ‘천한 청’으로 인식됐고, 주민은 여지없이 경멸당했다.¹⁴⁾ 결국 진화론적 시각을 갖게 된 조선인은 문명화된 정도에 따라 중국을 ‘야만’,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을 ‘문명’, 일본을 매개로 근대화를 추진하는 조선을 ‘반문명’으로 이해하는 일본-조선-중국 순의 계서구조(이욱연 2006: 254-255)를 상상하게 된 것이다.

근대 문명의 낙오자로서 낙후된 중국이라는 이미지는 냉전체제가 성립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한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편입되고, 중국은 ‘홍위병과 문화대혁명’, ‘죽의 장막과 어둠의 나라’, ‘천안문사태와 비민주적인 처사’ 등으로 상상되면서 한국인은 중국을 여전히 근대 문명의 낙오자로 인식했다. 이와 더불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된 한국은 보편적 문명론에 입각해 세계중심으로 부상한 미국을 축으로 하는 위계질서를 상상했다. 진화론적 문명론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

14) “인민이 약하며 천하며 어리석으며, 더러우며 나라 위할 마음이 없으며 남의게 천대를 바다도 천댄줄 모르고 업수히 너임을 바다도 분한줄 모로난지라(독립신문 1896. 4. 25), 세계에서 제일 천한 청국(독립신문 1896. 9. 12)”(백영서 2000: 174)이라는 식으로 자못 신랄한 논조를 펼치기도 했다.

가인 중국은 여전히 문명의 낙오자로서 야만적인 국가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점하는 위상에 따라 “미-일-한-중”이라는 국가별 계서구조”(ibid.: 255)를 확립했다.

칭다오로 건너간 한국기업인 역시 한국인으로서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계서구조를 공유했고, 중국 현지에서 중국이 낙후됐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낡은 옷을 입고 있고, 매연 풀풀 나는 삼륜자동차가 여전히 굴러다니며, 벽지도 발라져 있지 않은 채 시멘트 벽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높은 빌딩도 없을 뿐더러 그나마 도심지역은 오래된 집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고, 경제 및 행정시스템은 주먹구구식이며, TV에서는 ‘촌스러운’ 프로그램만 방송되고, 전기도 부족해 밤만 되면 암흑천지가 되며, 한국에서 가져온 나일론 스타킹과 벡타이 선물을 그렇게 좋아하고, 여자들 패션은 왜 이렇게 ‘후졌는지’, 칭다오로 건너간 뒤로 한국기업인은 “정말로 중국은 낙후된 나라구나”라고 생각했다.

‘중국이 낙후됐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도 현실에서 그대로 들어맞았다. 산업화가 미흡한 중국에서 한국기업인은 기술력의 비교우위를 통해 칭다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승승장구했다. 국제생산망의 중간공급자로서 화려하게 부활했고, 사회적 신분 및 지위도 일순 높아졌다. 쫓아내기에 급급했던 한국정부마저 수출효자기업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기업인에게 칭다오는 부와 명예의 차이나드림, 즉 대박과 지위상승의 꿈이 실현되는 ‘멋진 신세계’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기업인은 중국을 한국보다 낙후된 나라로 생각하게 되었고, 더불어 중국인을 한국인보다 가난한 사람들로 인식하면서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현지에서 우월적 지위를 경험한 한국기업이라면 중국이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뒤쳐진 이유, 그리고 작은 나라 한국이 대국인 중국을 앞지르며 경제성장을 이룩한 배경에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연

구자가 만난 많은 한국기업인들은 100년 전 조선인이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명-반문명-야만’의 단선적인 발전관에 기초해서 그 이유를 찾으려 했다. 즉, 중국민족성이 열등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민족을 타자화하며 중국인은 멸시하는 한국기업인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국기업인들은 한국이 중국보다 부자이면서 동시에 문명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로서, 자신도 우월한 문명국의 일원으로서 중국인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기업인이 중국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로 삼고 있는 “보편적 문명론”(엘리아스 2002)이라는 것이 실은 “문명 이데올로기를 통해 세계를 문명과 야만(또는 문명과, 반개와 미개)으로 양분하고, 식민 지배를 문명의 야만에 대한 문명화로 정당화하는 서구제국의 지배와 확장을 목표로 한 국민의식”(니시카와 2001: 119)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더럽고 염치없으며 문명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이미 1세기 이전에 일본인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만든 전략이었다. 이 문명화 전략 역시 이미 영국인들이 일본에서 한 차례 실험한 사례였기 때문에 일본 사회의 창안물이라고 할 수 없다. 어차피 “식민지배의 정당화를 위한 ‘피식민지 사람’의 발명은 지난 세기의 전 세계적인 현상”(김광억 2005: 36)이었다.

두 나라의 경제격차는 구조적 요인에 조건 지워진 결과이며, 한국이 문명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 역시 한국이 경제적으로 앞서 있다는 ‘경제적 계서구조’에 기반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인은 이를 진화론적 문명관에 따라 민족범주로서 재구조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나라가 서구열강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패했던 이유를 ‘천한’ 청나라의 민족성에서 찾았던 조선인처럼, 세계강국인 중국이 한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한 이유는 중국민족성이 한국민족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한국인은 문명화가 진행돼 경제를 발전시킨 반면, 중국은

“문화적으로” 여전히 야만적이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주변부로 전락했다는 논리였다. 즉, 재중 한국기업인들은 경제적 우위를 근거로 민족적 우월인식이 투영돼 있는 중국별시관을 공유했다.

이와 같은 한국기업인의 중국별시관은 100여 년 전에 조선인이 문명적으로 앞서 있다는 생각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이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중국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중 간 경제격차를 비롯해 한국기업인의 기술적 우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기업인이 중국(인)을 멸시할 근거가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한국기업인들이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에 따른 합리적 대응으로서 중국(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2장 참조).

하지만, 한국기업인을 만나다 보면 현실에서 위기의식을 실감하고 있음에도 중국의 부상을 평가절하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고유림사장은 “[세계를] 지배한 것도 징기스칸, 그것도 몽고(몽골)지 중국이 아니다”고 덧붙이면서, “그건 뭐냐 하면 재네들보다(다른 나라보다) 세련되지 못해서 지배를 못한다. [중국인] 열등감을 갖고 있다.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앞으로 경제선진국이 될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세련되지 못한 민족성 때문에 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채석우 사장 역시 “문화혁명하고 천안문사태 때 사람 죽인 거 보라. 중국이 발전한 것은 전부 해외기업 때문이다. 민족성이 못돼서 금방 무너질 거다”고 확신했다. 중국이 정치적, 군사적 강대국이며,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민족성이 스스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물론 말과 의식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며, 특히 행동은 또 다른 문제다. 실제로 고유림, 채석우 사장처럼 중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들을 보면 때로는 연구자에게 들려줬던 말과 다른 행동을 보이

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한국기업인들이 중국멸시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고유립 사장(H의류)은 달라진 경제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국기업과 동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평소 하청을 줬던 기업(Z의류)과 동업관계를 맺었다. “믿을 수도 없는 중국인과 친구 할 수가 없다”던 고사장이 결국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응으로서 “열등한 중국인”과 손을 잡은 것이다. 늘 중국인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였던 고사장의 평소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행동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고사장이 동업을 맺은 중국인사장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인사장을 기술을 배우러 자신의 밑으로 들어온 직원쯤으로 생각했고, 일상생활부터 공장운영까지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비판했다. 연구자가 보기에 끊임없이 중국인사장을 깎아내림으로써 여전히 자신은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행동 같았다.

이와 같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한국기업인 중에서 중국멸시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들이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을 비하하는 강도가 위기의식을 느끼기 이전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중국진출 초기만 해도 한국기업인들은 중국을 가난한 나라, 근대화가 덜 된 낙후된 나라 정도로만 바라봤다. 하지만,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한국기업인의 중국인식은 인종편견적인 태도를 노골화했다. 예를 들어, “동물스럽다”고 표현한 김영광 부장(BR공예품)처럼 중국인을 ‘상종할 수 없는 야만스러운 민족’으로 낙인을 찍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한마디로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낄수록 중국의 야만성을 노골화하는 듯 했는데, 그 강도가 시쳇말로 “개무시”¹⁵⁾라고 말할 정도였다.

15) 접두어로서 ‘개’와 ‘무시’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신종어로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개’와 관련된 단어는 아예 사람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비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무시’가 표준어도 아니고 비어에 가깝기 때문에 논문에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상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문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또한, 연구자가 만난 한국기업인은 중국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아예 사람취급을 하지 않

우리가 처음 와서 봤을 때는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자본주의보다 더한 자본주의다, 이런 생각을 했죠. 애네들은 진짜 자본주의를 넘어서 배금주의 내지는 황금만능주의다. 돈이면 진짜 안되는 것이 없는데. 애들은 몸 파는 행위도 쪽팔린다는 것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하는 것 같애. (남현곤 이사)

나는 (예의 있는 중국인을) 겪어보지 못했어. 그것이 내가 애네(중국인)들 하고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애네들 자체적으로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예전에 있었던 전통들이 싹 다 없어진 것 같아. 그것이 아주 주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무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의가 없다는 것인가?) 솔직히 무시할 이유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무시하게 돼. 한국에서 보면 상것들이라고 하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온 상태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는 부류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하도 기가 막히는 것만 나오잖아요. 이에 반해서 일본 애들은 왜놈이라고는 하지만, 예의 하나는 깎듯하잖아. 그러니까 무시 안 되는 거예요. (중략) 중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중국놈(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할 만하니까 하죠. ... 애네(중국사람)보다 고차원적인 문화에서 살았던 놈이라는 생각이 잠재의식에 있어서 깔볼 수도 있죠. 아니면 그런 잠재의식을 갖고 있다가 와서 직접 겪어보니까 ‘어 정말이네’ 하면서 확인이 돼서 더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마디로 (중국인은) ‘이런 예의도 모르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죠. (최유석 부장)

우리가 중요시하는 상대에 대한 배려라든가, 예의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애네들은 안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안돼요, 내가 볼 때는. 미국 애들이 인디언 무시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 동물스럽고, 너무 고급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기본 생활권이 애네들은 약간 동물스럽잖아요. 애네들이 사람답지 못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기본 무시가 깔린 거지. 중국 사람들 이야기를 담은 야사, 야화 같은 것을 보면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하잖아요. 고위층인데도 우리말로 하면 짐잡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거지. (김영광 부장)

블루머(Blumer 1958; 이채문 2000: 76에서 재인용)는 인종편견이 지배집단의 우월감, 하위집단은 본질적으로 지배집단과 다르다는 감정, 특권이나 이권의 영역에서 소유권과 관련된 감정 및 하위집단이 지배집

을 정도로 무시했다. 따라서 한국기업인에게 전해들은 느낌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취지에서 ‘개무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단의 특권에 반대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그는 지배집단의 특권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외부집단에 대한 편견이 심해진다고 강조한다. 일본인이 중국위협론에 대응해 혐중감정을 드러내는 현상(이기완 2010: 213), 태평양 전쟁 당시 진주만을 공격 받은 미국이 재미 일본인에 대해 무차별적인 인종편견 정책을 펼친 사건(김봉중 1997: 138), 중국인이주민의 맹류현상에 황화론적 공포를 느끼는 극동러시아인이 중국인이주민에 대해 극도의 인종편견을 드러내는(이채문 2000: 97-98, 2003: 11-13) 이유 역시 집합적 위협과 관련돼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한국기업인 역시 모든 것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재되어 있던 인종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중국민족성을 타지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처음 한국기업이 칭다오에 올 때는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욕먹어도 굶신거렸다. 지금은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된다. 한국사람 알기를 개똥으로 안다.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 누구보다 강한 중국멸시관을 드러내는 고유림 사장(H의류)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결국 한국기업인들은 자신이 처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이해의 정치(the politics of interests)”만이 아니라 “정체성의 정치(the politics of identity)”로서 이해하고, 이를 중국멸시관에 투영시키고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한국인의 중국인식을 다루는 연구들을 보면 청일전쟁 이후에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전통적 중국관은 중국멸시관으로 바뀌었고, 개항개방 이후에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인의 중국인식은 다시 중국위협론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처럼,

중국 내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 한국기업인이 갈수록 중국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당연히 위기의식과 두려움에 대한 합리적 반응이 뒤따랐다. 중국인과 더불어 살려는 자세를 강조하는가 하면, 한중관계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때로는 구한말 온건적 개화파가 전통적 중변관계를 대외관계의 안전판으로 여기며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중국을 근대화모델로 선택한 것과 같은 사대주의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위협론이 강조되었다고 해서 한국기업인의 중국인식이 ‘멸시에서 두려움으로’ 전환되었거나, 또는 기존의 인식들이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국기업인 모두가 중국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에 따른 합리적 대응으로서 사대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기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인에게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나라였다. 우월적 지위에 대한 경험, 한국에서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무너지지 않은 차이나드림’이 한국기업인으로 하여금 여전히 중국을 부와 명예가 실현되는 ‘멋진 신세계’로 상상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한국기업인들은 중국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중국멸시관을 강하게 드러냈다. 진출초기에는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로 이해하는 것에 머물렀지만,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후에는 ‘상종할 수 없는 야만스러운 민족’으로 낙인을 찍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기업인의 중국멸시관을 집합적 위협에 대한 사회문화적 대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이 부상하면서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기업인의 중국인식을 일상적 경험을 통해 들여다본 결과, 단순히 ‘두려운 중국’이라는 이미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즉,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는 멋진 신세계로서 ‘매력적인 중국’,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문명적으로 열등하고 민족성이 ‘야만스러운 중국’이라는 인식이 복

합적으로 발견되는 중첩된 구조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중첩된 인식 중에서 한국기업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중국의 행적에 따라 때로는 두려운 이미지가, 때로는 매력적인 이미지가, 때로는 아만스러운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재중 한국기업인 모두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업들은 중국의 산업구조조정 때문에 오히려 득을 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따라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 한국기업인의 중국인식을 재중 한국기업인 전체의 인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 내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 한국기업인의 사례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인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누차 강조해왔듯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가인식이 순차적인 변화를 불러오거나 또는 특정 국가인식이 출현한다고 해서 이전의 것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부상처럼 정치경제적 상황변화나 특정한 사건(예, 동북공정)이 국가인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역사적 연속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중국인식의 변화는 외부로 비쳐지는 스펙트럼의 한 변동일 뿐,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다양한 인식 중에서 인식주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어느 하나가 불거지거나 혹은 여러 내용이 동시에 발견되는 것이다.

논문접수일: 2010년 10월 15일, 논문심사일: 2010년 11월 19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2일

참고문헌

강진아

- 2006 “우리 눈에 비친 이웃집의 중국인: 한국의 화교,” 이종민 외, 『한국과 중국,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서울: 제이앤씨, pp. 297-320.

금희연

- 2004 “중국위협론의 실체: 중국의 세계전략과 전방위외교정책,” 『중소연구』 27(4): 79-112.

기무라 간

- 2000 『조선/한국의 내셔널리즘과 소국 의식: 조공국에서 국민국가로』, 서울: 산치림.

김광억

- 2005 “종족의 현대적 발명과 실천,” 김광억 외, 『종족과 민족』, 서울: 아카넷. pp. 15-84.

김광억 · 진영평

- 2004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통일연구원.

김봉중

- 1997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인 강제격리로 본 미국인의 반일본인 감정, 1882~1942,” 『미국사연구』 6: 137-160.

김한규

- 1999 『한중관계사 2』, 서울: 아르케.

니시카와 나가오

- 2001 『국경을 넘는 방법: 문화·문명·국민국가』, 한경구 · 이목 옮김, 서울: 일조각.

로이드 젠슨

- 1994 『외교정책의 이해』, 김기정 옮김, 서울: 평민사.

민두기

- 1999 “반보산사건(1931)과 한국언론의 대응: 상이한 민족주의적 시각,”

『동양사학연구』 65: 143-174.

박승준

2010 『한국과 중국 100년』, 서울: 기파랑.

박정현

2010 “1882~1894년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 해결방식을 통해 본 한중 관계,” 『한국근현대사연구』 45: 1-20.

백영서

2000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서울: 창작과비평사.

서진영

2002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 『한국과 국제정치』 18(2): 1-27.

2006 “중국과 한반도: 위협인가 기회인가,” 『21세기 중국의외교정책: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 서울: 폴리테이아, pp. 313-328.

서진영 · 강수정

2008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 중국의 부상에 관한 미국과 아시아 주변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8(1): 67-92.

엘리아스, 노르베르트

2002 『문명화 과정』, 박미애 옮김, 서울: 한길사.

유장근

2006 “수교 이후 한국인의 중국 여행기에 나타난 중국관,” 이종민 외, 『한국과 중국,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서울: 제이앤씨, pp. 321-338.

이기완

2010 “일본의 대중인식과 대중정책,” 『통일문제연구』 53: 191-224.

이래영 · 정한울

2007 “국제여론을 통해 본 중국위협론의 평가와 전망,” 『중소연구』 114(여름): 15-220.

이상신

2009 “한국인의 유연한 현실주의: 대북, 대미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7(3): 97-120.

이옥연

2006 “한중 문화교류와 한중 ‘공동의 집’,” 이종민 외, 『한국과 중국,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서울: 제이앤씨, pp. 253-271.

이장원 · 이창휘 · 김성훈 · 윤문희

2008 『중국 노사관계 변화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실태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이종민

2006 “개혁개방 이후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눈,” 이종민 외, 『한국과 중국,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서울: 제이앤씨, pp. 13-38.

이채문

2000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황화론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4(1): 73-108.

2003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노동력과 러시아인의 인종편견에 관한 연구: 중국노동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1): 1-23.

이춘식

1997 『사대주의』,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임춘성

2009 “한국 대학의 미국화와 중국 인식,” 『현대중국연구』 11(1): 289-320.

장세길

2010 “노동집약적 한국기업의 중국진출과 위기대응,” 전북대학교 고고 문화인류학과 박사논문.

전성홍

2005 “중국 자본주의의 발전과 세계정치에서의 위상: ‘중국의 부상’을 둘러싼 논쟁과 시각,” 『사회과학연구』 13(2): 284-313.

전우용

2003 “한국 근대의 화교 문제,” 『한국사학보』 15: 377-409.

지만수

- 2006 “한중 경제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이종민 외, 『한국과 중국,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서울: 제이앤씨, pp. 275-296.

지병근

- 2008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인식론적 장애 요인: 한국에서의 반일 반중 의식,” 『한국과 국제정치』 62: 125-147.

채수홍

- 2008 “베트남의 주변국 인식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동남아시아연구』 18(1): 181-211.
2009 “베트남 거주 한국 매니저의 초국가적 경험,” 한국동남아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pp. 1-18.

총성의

- 2000 『근대 한국 지식인의 대외인식』,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최승현

- 2006 “역사적 분석을 통한 한국과 중국의 상호인식 연구,” 『中國人文科學』 33: 425-442
2008 “21세기 동아시아의 정체성 연구,” 『中國人文科學』 39: 381-397.

한석희

- 2003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시각,” 『한국정치학회보』 37(3): 289-465.

홍면기

- 2008 “협한과 혐중, 그리고 냉정과 열정,” 『동북아역사문제』 2008(2): 1-6.

황동연

- 1999 “민족주의와 아시아주의의 교차: 미국 듀크(Duke) 대학에서 일어났던 한중유학생들 사이의 ‘분쟁’과 그 의미,” 『중국현대사연구』 7: 81-94.

Caldeira, Teresa P. R.

- 1999 “Fortified Enclaves: The New Urban Segregation,” in Setha M. Low (ed.), *Theorizing the City: The New Urban Anthropology*

Reader, New Brunswick: Rutgers Univ. Press, pp. 83-107.

Chung, Jae Ho

2001 “South Korea Between Eagle and Dragon,” *Asian Survey* 41(5): 777-796.

Elang, Ivan

2003 “Is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Policy Analysis* 465: 1-14.

Nye, Joseph S., Jr.

1990 “Soft Power,” *Foreign Policy* 80: 153-171.

Segal, Gerald

1999 “Does China Matter?,” *Foreign Affairs* 78: 1-9.

Soh Sarah ChungHee

2003 “Politics of the victim/victor complex: Interpreting South Korea’s National Furor over Japanese history textbooks,” *American Asian Review* 21(4): 145-178.

〈Key concepts〉: Korean enterprisers' perception of China, fearful China, attractive China, savage China

Fearful, Attractive, and Savage China: Perception of China of Korean Labor-Intensive Companies' Enterprisers

Jang, Segil*

This study explores how Koreans regard Chinese, through the cases of Korean enterprisers in China. Korean enterprisers' perception of China is a bit complicated rather than simple. That is, they see it as 'attractive China' in which making money and the economic status of upper classes could be given to them, as 'China with savage nationality' that is both economically and culturally inferior to Korea, and finally, as 'fearful China' which is a imagery that is socially constructed through collective threat they experience in daily life in China. Among these perceptions, a particular one is selectively manifested according to a situation that Korean businessmen face and to a series of Chinese' attitude. After all, it can be argued that perceptual changes are just a superficial phenomenon. In other words, those depend upo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situation of

* Lecturer, Dept. of Archae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n enterprisers in China. Korean businessmen's perception of China like this can be considered indices by which Koreans' perception of Chinese, in general, can be inferred. In addition, we can expect that the discussion on the perception will provide the first step to analyze the influence of China's growth on Korean society and to set the direction of a series of practices such as state policy, economic activities, and civilian exchanges.

